

월간 실적보고

2015.05

Summary of 2015 May

1. 해외 총 송객인원 (패키지+티켓) 54.6% 성장

- 패키지 **49.3%** / 티켓 **66% YOY** 성장

패키지 역대 최고 월간 YOY 성장률 (인원 10.3만명)

티켓 10개월 연속 YOY 성장률 2자리수 (인원 5.3만명)

2. TOP 3 : 일본, 중국, 유럽 그리고 모든 지역 플러스 성장

- 일본 **162.4%** / 중국 **42.7%** / 유럽 **37.2% YOY** 성장

- 일본 **3개월 연속 3자리수 YOY** 성장률

- 중국 송객인원 비중 **1위 (30.8%)**

- 유럽 역대 최고 월간 송객인원 (**1.1만명**)

5월 : 역대 최고의 월간 성장률

5월 패키지와 티켓 합산 성장률 54.6%, 송출인원 15.6만명으로, 역대 최고 월간 성장률과 역대 5월 중 최대 송출인원을 기록했습니다. 14년 9월부터 시작된 두자리수 성장률은 9개월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, 비수기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 성장을 보인 한달이었습니다.

패키지는 49.3%의 YOY 성장률로, 역대 최고의 월간 성장률을 보였습니다. 인원도 역대 5월 중 최고인 10.3만명을 기록하며, 지난 4월에 이어 2달 연속 10만명을 넘겼습니다. 15년에는 3월을 제외하고 매월 10만명 이상을 송출했습니다.

티켓 성장률은 66.0% 입니다. 역대 최고 월간 성장률을 보였던 지난 1월 (81%)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, 이번 달에도 패키지 성장률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

매달 더 높아지는 성장률

(단위 : 명, %)

	패키지	티켓	총 송객인원
2015	103,335	53,425	156,760
2014	69,209	32,177	101,386
YOY	49.3%	66.0%	54.6%

총송객 YoY : 15년 2월 22.1% → 3월 39.8% → 4월 49.5% → 5월 54.6%)

패키지 YoY : 15년 2월 15.7% → 3월 36.9% → 4월 46.7% → 5월 49.3%)

티켓 YoY : 15년 2월 39.2% → 3월 46.5% → 4월 56.4% → 5월 66.0%)

일본 162% ↑ 중국 43% ↑ 유럽 37% ↑ + 전 지역 플러스 성장

5월 해외 지역별 인원 성장률은 전년대비 일본 162%, 중국 43%, 유럽 37% 이며, 지역별 인원비중은 중국 30.8%, 동남아 27.7%, 일본 22.6% 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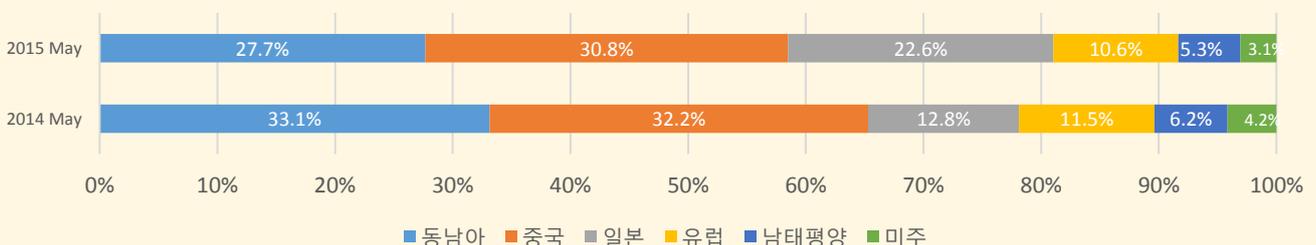
일본 지역은 전년동월 대비 162.4% 성장하였습니다. 3달 연속 130%을 넘는 성장을 하며, 실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. 15년 들어 인원비중도 꾸준히 22% 이상을 기록하며 2011년 쓰나미 이전의 좋은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.

중국 지역의 성장률은 42.7%, 송객인원은 3.1만명 입니다. 이번 5월에는 인원비중 30.8%로 동남아 지역 보다 높은 인원비중을 차지하며, 2달 연속 월간 송객인원 3만명을 넘었습니다. 그동안, 타 지역 대비 성장률이 낮았던, 중국의 좋은 실적은 전 지역의 균형적, 안정적인 성장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.

유럽 지역 성장률은 37.2%로, 2달 연속 36% 이상 성장했습니다. 10개월만에 인원비중 2자리수 (10.6%)를 차지하면서 15년 1월부터 기여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. (비중: 1월 4.9% → 5월 10.6%)

이번 5월은 5개월만에 전 지역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면서, 균형잡힌 성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.

인원 비중



예약률 증감 (PKG)

(단위 : 명, %)

	6월	7월	8월
2015년	76,268	37,609	27,817
2014년	59,317	24,362	19,906
증감률	28.6%	54.4%	39.7%
2014년 마감	73,720	86,108	94,970

* 2015.5.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

6월 예약률은 **28.6%**로, 4월초 예약률 1.8% 대비 꾸준히 상승하였습니다.
7월 예약률은 **54.4%**로, 5월초 예약률 57.2%와 유사한 수준입니다.
8월 예약률은 **39.7%**로 시작했습니다.

2분기의 마지막 달인 6월부터 작년 세월호 사고로 인한 예약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.
 2분기 말 부터 기저효과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, 높은 예약율은 3분기 까지 무난하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